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

한선이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부연구위원 (seonihan@kiep.go.kr, 044-414-1345)

황인정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ijhwang@kiep.go.kr, 044-414-1553)

## 차 례

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경
2.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3. 평가 및 향후 협력 과제

부록

## 주요 내용

- ▶ 2024년 6월 4일과 5일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은 '함께 하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
  - 한국과 아프리카 48개국은 ① 동반성장: 교역·투자 확대, 인프라 관련 협력 증진, 아프리카 역내 경제 통합 지원, ODA 및 금융 지원 규모 확대, ②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협력, 식량안보 역량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디지털 전환 협력, ③ 연대: 아프리카의 평화 기반 구축, UN, G20 등 국제무대에서 연대 강화,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이튿날에는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어 19개국 정상급 인사가 릴레이 연설을 했고, 다자회의와는 별도로 정상이 참석한 25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개별 국가와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역사적 공감대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장기적·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고, 정상급·고위급 협의를 통해 26개국과 외교, 교역·투자, 개발협력, 농업, 인프라, 핵심광물, 청색 경제, ICT,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건의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양자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성과를 도출함.
- ▶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장기적인 비전을 기반으로 지속성·일관성 있는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간 협력을 지렛대 삼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해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 범정부 차원으로 장기적 비전을 담은 대아프리카 전략을 수립해 고위급 교류를 가속화하고 후속 조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추진 필요
  - 개발협력의 규모를 확대하고 효과성·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화와 경제통합에 핵심적인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패키지형 플래그십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현지 수요와 한국의 강점이 교차하는 △농업, △보건,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청색 경제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
  - EPA, TIPF 체결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금융 제공,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현지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다자·양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국의 부채 문제 해결과 개발 파이낸싱 갭 해소를 위한 노력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요구되며, 아프리카 54개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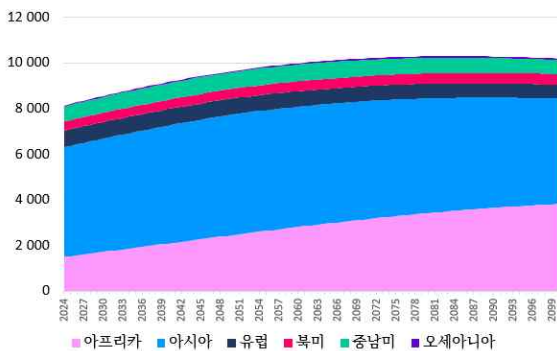
# 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경

■ 최근 복합 위기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수가 많아지고 경제 안보와 협력 다변화가 강조되면서 아프리카는 빠르게 증가하는 젊은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며 새로운 기회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공급망 재편,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 중임.
- [인구 변화] 205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25억 명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인구배당효과가 기대되면서 유망 소비시장이자 노동 공급시장으로 부상
  - 아프리카 지역의 중위연령은 19세이고, 25세 이하 인구가 62%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며, 2060년까지 중산층 인구가 1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1)</sup>
- [천연자원] 그린 전환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경작지의 2/3, 산림의 1/6을 보유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전기 수요의 76%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재생에너지원(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을 보유함.<sup>2)</sup>
  -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코발트의 70%, 백금의 70%, 망간의 60%, 구리의 12%를 생산함.<sup>3)</sup>

그림 1. 글로벌 인구 변화 예측

(단위: 백만 명)



자료: UN(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 아프리카 지역 내 핵심광물 생산·매장 현황

광종	생산/보유국	전 세계 비중
리튬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1% 매장
니켈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6% 매장
코발트	DR콩고,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48% 매장
망간	남아공,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48% 매장
흑연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탄자니아	22% 매장
희토류	마다가스카르, 남아공, 팔라워, 모잠비크, 탄자니아, 나미비아	2% 생산
백금	남아공, 짐바브웨	90% 매장
구리	잠비아, DR콩고, 보츠와나	6% 매장

주: 1) 한국의 핵심광물로 지정된 주요 광종을 포함함.  
2) 희토류는 주로 개발 단계로 매장량 추정치가 없음.  
자료: World Mining Data(2024), UNCTAD(202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2015~20년 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출산율은 4.6명,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7%를 기록함. AfDB의 정의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중산층으로 개인당 일 소득이 2~4달러인 유통층(Floating Class), 4~10달러인 하위 중산층(lower-middle class), 10~20달러인 상위 중산층(upper-middle class)이 포함됨. UNIDO(2023), "Growing Middle Class and Continental Import Substitution: Connecting the Dots to Unlock Made in Africa," p. 5; WHO(2022), "Atlas of African Health Statistics 2022," p. 5; UN(202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p. 4.  
2) Zarfl and Peters(2024. 3. 27.), "A new study reveals how renewables could power Africa by 2040," World Economic Foru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3.).  
3) Mo Ibrahim Foundation(2022), "Africa's Critical Minerals," pp. 2-8.

- [외교적 영향력] 아프리카 지역은 UN 회원국 193개국 중 27%인 5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세 자리를 보유해 국제무대에서 평화·안보 의제를 주도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sup>4)</sup>
  - 2023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의 44%가 아프리카 지역과 연관되어 있음.<sup>5)</sup>
- 아프리카 지역은 대륙 및 지역 차원에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함께 성장을 추진할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아프리카연합(AU)은 2013년 향후 50년에 대한 장기발전전략인 어젠다 2063(Agenda 2063)을 발표하여 ‘통합되고 번영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로 성장하여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움.<sup>6)</sup>
  - 핵심 사업으로 2019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해 53개국, 인구 14억, GDP 3.4조 달러 규모의 거대 단일시장 구성 및 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한 대륙 차원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sup>7)</sup>
- 아프리카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회의 땅’으로서 가치가 재정립되고 있으며, 신냉전 시대 비동맹 외교의 각축장이 되면서 국제사회 주요국에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일본, EU,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파트너뿐만 아니라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규 협력국도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한 정상회의를 개최해 정치 및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표 2. 국제사회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정상급 협력 채널

국가	협의체	개최 일정(시작연도)
일본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2022년 8차 회의 개최(1993)
EU	EU-AU 정상회의	2022년 7차 정상회의 개최(2000)
중국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2024년 9차 포럼 개최 예정(2000)
인도	인도-아프리카 포럼 정상회의	2015년 3차 정상회의 개최(2008)
튀르키예	아프리카-튀르키예 파트너십 정상회의	2021년 3차 정상회의 개최(2008)
미국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2022년 2차 정상회의 개최(2014)
러시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2023년 2차 정상회의 개최(2019)
영국	영국-아프리카 투자 정상회의	2020년 1차 정상회의 개최
프랑스	신 아프리카-프랑스 정상회의	2021년 1차 정상회의 개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아프리카 정상회의	2023년 1차 정상회의 개최
이탈리아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년 1차 정상회의 개최

자료: 저자 작성.

■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 실현과 외교 및 경제협력 지평 확대, 교역과 투자를 위한 신시장 개척,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확대 필요

-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세우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sup>8)</sup>

4) 아프리카 지역은 UN 회원국 기준으로는 54개국,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기준으로는 서사하라를 포함한 5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정부는 서사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5) UN 안보리 자료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3.).  
 6) 아프리카연합 홈페이지,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4.).  
 7)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기준으로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 UN 기준으로 53개국이 가입함.  
 8)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한반도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국제 협력과 질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안보 비전으로 제시.

- 한국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핵심광물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소비 및 노동 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 다변화가 중요함.
  -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부존 자원의 한계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해외 수입의존도가 95%에 이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선결과제임.<sup>9)</sup>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커진 영향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식량안보, 분쟁, 보건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전 세계 복합적인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간의 교류는 2006년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나, 교역·투자 차원에서는 정체되어 있었음.<sup>10)</sup>

-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한국전 참전·지원으로 시작, 1960년대 절반이 넘는 아프리카 국가와 수교를 체결하여 외교의 역사가 짧지는 않으나 정치적·지리적인 이유로 협력이 제한적이었음.
  -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에 집중했고, 냉전 시대에 비동맹을 추구한 아프리카 국가와는 정치·이념적 장벽이 존재해 2011년에 이르러서야 대륙 내 54개국 모두와 국교를 수립함.<sup>11)</sup>
- 1980년대에 한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양측의 관계가 재개됨.
  -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은 아프리카개발기금(AFD)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대아프리카 공적원조가 증가함.<sup>12)</sup>
-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2006년으로 이때 한-아프리카 포럼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가 출범하여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활성화됨.<sup>13)</sup>
  - 2022년 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2022 서울 선언과 협력 프레임워크(2022~26)를 발표했고, 2023년 7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에서 향후 2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지원을 약속함.
- 2016년 ‘아프리카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청사진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강화
  - 이를 계기로 한-AU 협력기금을 100만 달러로 증액하고, AU 평화기금에 200만 달러를 기여했으며, 4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통해 한-AU 정책협의회를 신설함.

9) 산업통상자원부(2023. 2.), 「핵심광물 확보전략」.

1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홈페이지, 관계 및 협력 현황(검색일: 2024. 7. 4.).

11) 현재 아프리카 지역 23개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음.

12) 아프리카개발기금(AFD: African Development Fund)은 역내 최빈국가에 대한 양허성 자금지원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 내 설치된 기금임.

13) 2006년부터 외교부는 아프리카연합과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해왔으며 2022년 5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기획재정부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공동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KOAFEC)는 2023년 9월 부산에서 7차 회의가 개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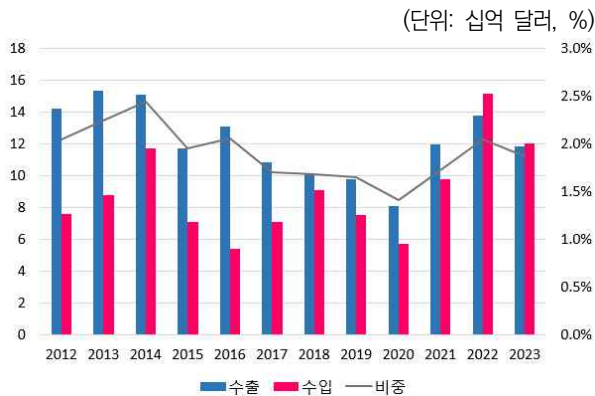
표 3.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간 관계 개요

연도	주요 내용
1950년대	에티오피아, 남아공,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집트 등 한국전 참전 및 지원
1961	아프리카 6개국(니제르, 베냉,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과 첫 수교
1980	아프리카개발기금(AFD) 가입
1982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회원국 가입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1988	서울올림픽에 아프리카 42개국 참가
199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설
2005	한국, 아프리카연합(AU) 옵저버 자격 획득
2006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출범 ‘한-아프리카 포럼(KOAF),’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 출범
2013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출범
2016	‘아프리카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청사진 이니셔티브’ 출범
2018	‘한-아프리카 재단’ 설립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자료: 저자 작성.

-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액은 2023년 기준 239억 달러(수출 119억, 수입 120억 달러)로 한국 총교역액의 1.9%를 차지했는데, 전 세계 교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2.7%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확대 가능<sup>14)</sup>
  - o 한-아프리카 간 교역은 2014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나 비중은 2% 정도를 유지 중이고, 2023년 교역 규모는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액의 8.4% 수준임.
- 한국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액(FDI)은 2023년 기준 3억 4천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0.5%를 차지했는데, 글로벌 FDI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sup>15)</sup>
  - o 대아프리카 투자 규모는 일정한 패턴 없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은 지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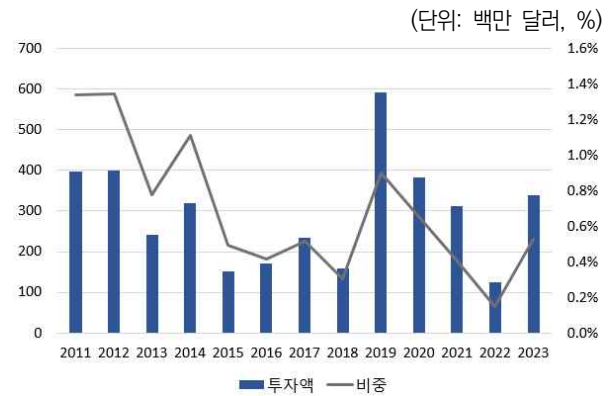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추이



주: 비중(우)은 전체 교역액 중 대아프리카 교역액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Trademap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추이



주: 비중(우)은 전체 투자액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 ITC Trademap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5)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와 UNCTAD(2023), "World Investment Report 2023"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 2.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 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요

-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의 정상급 다자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024년 6월 4~5일 ‘함께 하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The Future We Make Together: Shared Growth, Sustainability, and Solidarity)’를 주제로 개최됨.
  -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첫 수교 후 63년 만에 최초로 아프리카 지역과 정상급 다자회의를 개최함.<sup>16)</sup>
  -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6개국을 제외하고 초청받은 48개국 모두 참석했으며, 그중 25개국에서는 국가원수가 직접 참석함.<sup>17)</sup>
  - 지역 국제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Africa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대표도 참석함.

표 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국

일자	구분	참석국
북부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서부	베냉,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중부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상투메프린시페
	동부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남부	앙골라,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지역 구분은 외교부의 지역 구분에 따름.

자료: 저자 작성.

- 첫날인 6월 4일에는 다자 정상회의가, 이튿날에는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었고, 다자회의와 동시에 25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부처에서 주관한 부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짐.
  - 첫날 개최된 다자회의에서 3대 의제인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기반으로 7대 분야인 △교역 및 투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속가능한 인프라, △직업훈련 및 교육, △디지털 전환 및 과학기술,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 △평화·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함(부록 참고).<sup>18)</sup>

16) 한국은 1961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니제르, 베냉,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현재 54개국 모두와 수교함.

17) 쿠데타 등으로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부르키나파소, 가봉, 기니, 말리, 니제르, 수단을 제외하고 초청받은 48개국이 모두 참가함.

18)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2024. 6. 2)」, 외교부 보도자료.

-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성공 경험을 가진 한국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이며, 양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기에 희망함.
- 정상회의 이튿날에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되어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19개국 정상급 인사가 릴레이 연설을 함.
- 아프리카 정상들은 자국에서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가 가진 인공과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 확대를 기대함.
-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이 직접 참석한 25개국, 아프리카연합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교역·투자, 농업, 인프라, 핵심광물, 청색 경제,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아프리카 지역 내 한국기업 진출에 대한 정상들의 관심을 당부함.
- 정상회의 동안 △관광,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인프라, △보건, △청년 및 스타트업, △농수산업 등과 관련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위급 논의가 진행됨.

표 5.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일시	공식일정	부대행사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만찬</li> <li>▪ 양자회담(10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프리카 관광포럼(문화체육관광부)</li> <li>• 한-아프리카 사막화방지 산림협력 최고위급 패널토론(산림청)</li> </ul>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li> <li>▪ 다자 정상회의</li> <li>▪ 친교 오찬</li> <li>▪ 공동언론발표</li> <li>▪ 양자회담(4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포럼(한-아프리카 재단)</li> <li>• 아프리카 녹색기후금융 접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한 고위급 포럼(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li> <li>• 한-아프리카 보건 파트너십: 백신 접근성 및 보건 안보 강화(질병관리청)</li> </ul>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서밋</li> <li>▪ 양자회담(8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컨퍼런스(외교부)</li> <li>• 2024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외교부)</li> <li>•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국토교통부)</li> <li>•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과학기술정보통신부)</li> <li>•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농림축산식품부)</li> <li>• 2024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해양수산부)</li> <li>• KOFIH 이종옥펠로우십 프로그램 서울총회 기념포럼(보건복지부)</li> </ul>

주: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의 양자 정상회담은 6월 3일 이전에 진행됨. 부대행사 주최는 관련 정부 부처만 기입함.  
자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성과

■ [정부간 협력] 아프리카 19개국과 교역·투자, 농업, 해양 및 청색 경제, 기후변화, 핵심광물, 에너지 및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건의 정부간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함.

-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8개국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으며,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모로코와는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함.<sup>19)</sup>

19)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TIPF)는 FTA의 핵심인 관세양허를 배제하고 무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 정부는 2023년부터 신흥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와 체결했고,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앙골라, 가나, 말라위,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르완다와 TIPF를 추가로 체결함.
  - 한국은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과 지리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탄자니아, 모로코, 이집트, 케냐와 경제동반자 협정(EPA)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이집트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추진 중임.
  -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가 K-라이스벨트 사업에 추가로 참여해 협력국이 14개국으로 늘어났고,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와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르완다, 튀니지와 디지털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이셸, 케냐, 탄자니아와 청색 경제 분야에서, 앙골라와 보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모로코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협정에, 7개국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함.
    - 2024~28년 동안 탄자니아에 총 25억 달러, 가나에 20억 달러,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르완다에 10억 달러, 우간다에 5억 달러 규모의 양허차관을 제공할 예정
  - 그 외에 가나, 모로코와 기후변화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카보베르데, 앙골라와는 외교 분야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함.
- [공공 및 민간 부문] 정상회의 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8개국,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교역 및 투자, 개발협력, 농업, 금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40건 이상의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함.
- 한국무역협회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협력 플랫폼을 상설화하는 데에 합의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수입협회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은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케냐, 짐바브웨, 시에라리온, 모잠비크를 포함한 14개국,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교역 및 투자, 금융, 핵심광물, 농수산물, 금융, 에너지(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 에너지저장장치), 의료제품 분야 협력을 위한 20여 건의 협약을 체결함.
  - 이튿날 개최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 아프리카 17개국의 무역, 인프라, 플랜트, 광물 관련 55개 기업과 194개 한국 기업이 참석해 1억 87만 달러 규모의 수주·수출·투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짐.
    - 12개국(남아공, 우간다, 이집트,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알제리, 말리,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과 농업, 의약품, 건설 등의 분야에서 22건의 계약을 체결함.

협력을 담은 통상협력 체계로, 최근 한국정부가 통상영토 확대를 위해 비주력시장으로 남아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경제동반자협정(EPA)은 관세철폐·인하 외에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 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협정임. FTA통합플랫폼(2023. 10. 4.), 「자유무역 흔들리니... K통상, 이제 FTA 대신 TIPF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10.).

20) 관세부처합동(2024. 6. 5.),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 보도자료.

표 6.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계약 및 협약

분야	양해각서 및 협정	협력국	한국 측
경제, 교역 및 투자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가나, 말라위, 모리타니, 르완다,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동반자협정(EPA)	탄자니아(협상 개시), 모로코(협상 추진 체계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진흥기관 협력 MOU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KOTRA
	금융지원 협력 MOU	AfDB	무역보험공사
	수입 관련 유관 기관 협력 MOU	케냐, 르완다	수입협회
	상공회의소 간 경제협력 MOU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상공회의소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 MOU	AfDB	관세청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 발족 MOU	AfCFTA	무역협회	
농업	K-라이스벨트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지식교류 및 민관 협력 강화 MOU	코모로	농림축산식품부
	벼종자 생산단지 구축 무상원조 약정	케냐	외교부
해양·청색 경제	농수산물 산업 발전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협력 MOU	라이베리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 분야 협력 MOU	세이셸	해양수산부
	해양 분야 국제협력 강화 MOU	케냐	해양수산부
개발협력	청색경제 발전 협력 MOU	탄자니아	해양수산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협정	모로코	기획재정부
외교·사회	삼각협력 증진을 위한 MOU	이집트	KOICA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외교부
	국립외교원-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	앙골라	외교부
	외교부 간 협력 MOU	카보베르데	외교부
기후변화	경찰협력 MOU	앙골라	경찰청
	사회보장협정	모로코	외교부
기후변화	기후변화 협력 협정	가나, 모로코	환경부
	핵심광물 협력 MOU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	핵심광물 투자정보교류 협력 MOU	탄자니아	광해광업공단
	ICT 협력 MOU	튀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마트시티·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	르완다	국토교통부
	금융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MOU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모리셔스
에너지 및 인프라	송배전 신사업 분야 협력 MOU	모잠비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협력 MOU	앙골라	무역보험공사
	원전 및 에너지저장장치 협력 MOU	르완다	한국전력기술
보건	항공협정	짐바브웨	외교부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	나이지리아	식약처
보건	보건 협력 MOU	앙골라	보건복지부

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정부, 공공, 민간(기업 간 계약 제외)의 성과를 포함함.  
자료: 부처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평가 및 향후 협력 과제

#### 가. 평가

■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양측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래 관계에 대한 더 넓은 지평을 열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sup>21)</sup>

-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과 추진한 최초의 정상회의임에도 초청국 48개국, 이 중 33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참가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됨.
  - 2024년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26개국, 2023년 러시아에 27개국, 2022년 일본 TICAD에 20개국, 2021년 튀르키예와 2020년 영국에는 16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함.<sup>22)</sup>
-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상호 존중 속에서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하에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함.
- 주체적인 발전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아프리카 측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 아프리카연합은 자유(Freedom), 상호이익(Mutual Benefit)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강조함.<sup>23)</sup>
-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시도가 다소 늦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번 정상회의는 역동적 외교,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역량이 인정받고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의 도약 의지가 교차하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간 기존의 협력을 한층 심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sup>24)</sup>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농업,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삶의 기초적인 분야부터 디지털, 원전, 방위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개발협력을 넘어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한국이 행사의 주도권을 잡고 양측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정교하게 구상한 것으로 평가됨.<sup>25)</sup>
- 다자 회담과 더불어 국가원수가 참석한 25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부처별로 개별 국가 대표들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논의의 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음.
  -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과 더불어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농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기업가 정신,

21) 대한민국 대통령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4.).

22) 한-아프리카재단(2024. 6. 7.),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료: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협력」, 아프리카 위클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3.).

23) 아프리카연합 홈페이지(2024. 1. 29.), “Speech by H.E. Moussa Faki Mahamat, Chairperson of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at the Italy - Africa Summit: A Bridge for Common Growth,” 온라인 자료(2024. 7. 10.).

24) 한-아프리카재단(2024. 6. 7.),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료: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협력」, 아프리카 위클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3.).

25) Fabricius(2024. 6. 14.), “First Korea-Africa Summit: another missed opportunity for Africa,”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10.).

보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48개국 참석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논의가 이루어짐.

-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운영하여 아프리카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sup>26)</sup>
  -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2023년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공동협의위원회를 발족해 협의회를 개최해 왔으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성과 발굴 준비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아프리카 측과 소통함.<sup>27)</sup>
-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부처·기관 차원에서 추가적인 협력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회'와 한국의 '역량'이 결합해 상호 호혜적인 상생 파트너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sup>28)</sup>

- 최근 여러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진정한 상생(Win-Win)이 가능한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sup>29)</sup>
  -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중국이나 복잡한 역사적·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난민·이민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기 힘든 유럽 국가와 같이 협력에 있어 두드러진 비대칭성(asymmetry)이 존재하는 패권국과의 협력과는 다른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원함.
- 아프리카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 경제발전 잠재력과 한국이 전자,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산업에서 보유한 기술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이러한 기대를 방증함.
- 한편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성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 방식 필요

## 나. 향후 협력 과제

- [장기적 대아프리카 전략 수립]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과 장기적·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고위급 교류를 가속화해야 함.
  - [대아프리카 전략 수립] 아프리카와의 외교와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다층적으로 수립된 전략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지역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은 외교안보 분야의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협력 분야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과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 등 전략이 부처별·분야별로 분산되어 이들을 연계할 통합적인 대외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포지셔닝]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26)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2024. 6. 2)」, 외교부 보도자료.

27) 2024년 2월에 주한아프리카대사단 참석 준비협의회, 4월에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 직전 6월 2일에 45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2024. 6. 2)」, 외교부 보도자료.

28) 한선이(2024. 6. 11.), 「[기교진정성·공감으로 한-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6.).

29) TV5 Monde(2024. 6. 7.), 「Quel bilan pour le premier sommet Corée du Sud-Afriqu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5.).

자주적인 발전을 추진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역사적 유대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필요함.

- 한국은 식민지배, 전쟁, 빈곤을 경험했으나 빠른 경제 발전의 길을 개척해 왔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의 자립적 발전과 번영을 향한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어 역사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동등한 파트너십 형성 가능<sup>30)</sup>
- [장기적 비전 제시] 아프리카와의 중장기 협력의 틀은 2030년을 향하는 UN의 지속가능발전(SDGs) 목표와 아프리카연합(AU)의 어젠다 2063(Agenda 2063) 의제 달성을 기반으로 구상할 수 있음.
- EU와 아프리카연합 간의 중장기 협력 전략인 ‘2030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2030)’과 ‘중국-아프리카 협력 비전 2035(China-Africa Cooperation 2035)’도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

■ [협력의 일관성·지속성 확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양자·다자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 [전담조직 구성]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일관된 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상회의 성과를 관리하고 향후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추진에 있어 중심점이 될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힘.<sup>31)</sup>
- [정상급 협의체 정례화] 협력 사항 이행을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활용하면서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일본, 중국, EU와 같이 정상급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베냉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산발적인 자선(charité sporadique)’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아프리카 측에서도 협력의 지속성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에 대한 의무감을 강조하고 있음.
- [다각 협력 강화] 한-아프리카 간의 협력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3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각 협력을 확대할 필요
  - 한국기업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본기업과, 광물 개발 분야에서 호주 기업과 협력하는 등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음.
  - 일본은 ‘아프리카를 위한 프랑스-일본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EU-일본 센터(EU-Japan Centre)’를 설립해 대아프리카 투자 경험이 풍부한 EU 국가와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ODA 전략 고도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등 패키지형 플래그십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아프리카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

- [ODA 규모 확대] 2030년까지 대아프리카 ODA 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무상원조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유상원조 규모를 2030년에 현재보다 8배 이상 확대해야 함을 의미함.<sup>32)</sup>
  - 무상원조 20억 달러, 유상원조 8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2022년 대아프리카 무상원조가 3억 5천

30) 대한민국 대통령실(2024. 6. 3.),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할 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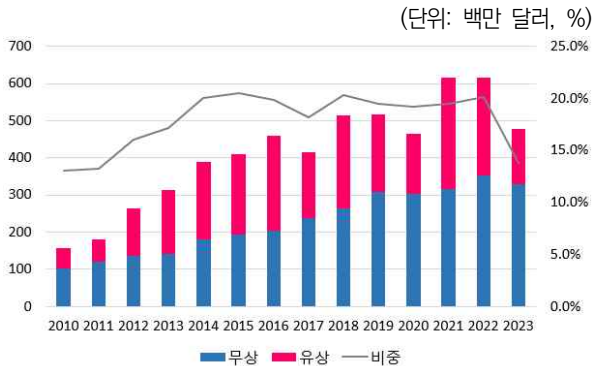
31) 이상현(2024. 6. 6.),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조태열 "장기적·전략적 관계의 출발점", 연합뉴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10.).

32) 2022년 대아프리카 유상원조는 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가정하에 향후 7년간 누적 80억 달러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유상원조의 규모는 2030년에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odakorea.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만 달러, 유상원조가 2억 6천만 달러임을 고려할 때 향후 유상원조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sup>33)</sup>

- [패키지형 사업 발굴 개발협력 사업 성과의 가시성을 높이고, 소규모 다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조 분절화 및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형·분야를 연계한 대규모 패키지형 플래그십 사업을 발굴해야 함.
  - 유무상 사업을 연계해 사업 준비 및 사업화 단계에서 개발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행하고, 본 사업 이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형태로 사업 추진
  - 한국의 2014~23년 누적 기준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아시아 지역(39.4%) 다음으로 큰 총지원액의 18.9%를 차지하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은 단발성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산업 연계 및 경제협력 증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sup>34)</sup>
  -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관세청 등 부처별·분야별 개발협력 시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ODA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멀티섹터형 사업을 발굴해야 함.

그림 4.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지원 추이



주: 비중(우)은 전체 ODA 규모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자료: ODAKorea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지원 분야



주: 분야별 비중(인도적 지원 제외)으로 2013~22년 누적 금액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프라 분야 이니셔티브 출범]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간 참여 증진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플래그십 사업 파이프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확대해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원
  - 아프리카연합은 산업화 및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인프라개발프로그램(PIDA: 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을 도입해 2040년까지 대륙 전역에 걸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은 2024~32년 연평균 4.5% 성장해 2033년에는 2,70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sup>35)</sup>
  -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요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전력, 수자원 관리 등의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 기술 기반의 운영·관리를 접목할 수 있음.<sup>36)</sup>

33) 한-아프리카재단(2024. 6. 7.),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료: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협력», 아프리카 위클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3.).

34) odakorea.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5) 서부 지역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동부 지역의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에서 인프라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Fitch Solutions(2023), "Sub-Saharan Africa Infrastructure Report," Q4.

36) 한선이(2024),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현황 및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 해외건설저널, 2분기.

- 한국은 지난 경제장관회의에서 아프리카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4~25년간 EDCF 포함 6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현재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송배전 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임.

표 7. 한국의 대아프리카 유상원조 인프라 사업

국가	주요 프로젝트	국가	주요 프로젝트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유관 건설</li> <li>Techiman 상수도</li> <li>Prestea-Kumasi 전력 강화</li> <li>볼타호 교통시스템 개선</li> <li>북부 전력 인프라 확충</li> </ul>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선버스 5번 전용도로 건설</li> <li>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li> <li>송전망 개선</li> <li>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li> </ul>
르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전력망 확충</li> <li>키갈리-무항가 국도 개보수</li> </ul>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레-테피 도로 개선</li> <li>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li> <li>솔루타-게브레구라차 전력망 구축</li> <li>동부 전력망 확충</li> </ul>
마다가스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나노드-아보히바리 변전소 건설</li> </ul>	튀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림픽 스타디움 건설</li> </ul>
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개개발 사업</li> </ul>	시에라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라타운시 복합행정센터 건립</li> </ul>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ZA주 송배전망 확충</li> <li>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li> <li>남풀라-나메틸 도로 건설</li> <li>태양광 발전소 건설</li> </ul>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레살람시 하수처리 시설 구축</li> <li>말라가라시강 교량·연결도로 건설</li> <li>이링가-신양가 송배전망 확충</li> <li>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li> <li>킬리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li> <li>도도마시 상수도 확충</li> </ul>
세네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카르-고래섬 해상교통 개선</li> <li>해상 인프라 구축</li> </ul>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룩소르-하이뎀 철도 현대화</li> <li>철도 전자연동 시스템 구축</li> </ul>

주: 2010년 이후에 수행된 인프라 분야 주요 사업임.  
자료: odakorea.org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개발 컨설팅 확대] 한국의 산업화 및 수출 주도 경제성장 경험 공유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등 개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sup>37)</sup>
  -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전전략, 산업화, 금융산업, 중소기업 육성, 정부 역량 강화, 전자정부 시스템, 연금·조세제도, 농수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옴.<sup>38)</sup>
- [비구속성 원조 확대] 구속성 사업으로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비구속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협력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지원
  - 정부는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에서 202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를 60%로 확대할 계획<sup>39)</sup>
- [다자원조 확대] 저소득국이나 취약·분쟁국 내 식량안보, 보건위생, 난민 보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문성과 현장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자 사업으로 추진
  - 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하위 20개국 중 16개국이 아프리카에 속함.<sup>40)</sup>

37) 경제발전경험공유(KSP: 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 자문 및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 사업임.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SP 심화 사업임.

38) KSP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39) 기획재정부(2023. 1. 26.),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 p. 8.

- 정부는 개발협력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자협력 추진 전략」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UN 산하 국제기구(WFP, UNDP, UNICEF, WHO, UNHCR, GGGI)나 지역 개발금융기관(AfDB)과의 다자협력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의 비중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표 8. 아프리카 지역 내 분쟁·취약국

지표	조사기관	아프리카 국가
취약국	Fund for Peace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에티오피아, 말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기니, 짐바브웨, 니제르,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모잠비크, 에리트레아, 우간다, 콩고공화국
분쟁국	세계은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제도·사회적 취약국	세계은행	부룬디,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리비아, 수단, 짐바브웨

주: 취약국은 취약국 지수(Fragile State Index) 기준 90점 이상 위험(Alert)국으로 분류된 국가를 포함함. 세계은행 자료는 2023년 기준, Fund for Peace 자료는 2024년 기준임.  
자료: Fund for Peace,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협력 분야 다변화] 지금까지 협력이 활발했던 농업,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최근 협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청색 경제 관련 분야에서 신규 사업 발굴 필요
- [농업] 아프리카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국의 농산업 제품과 농기자재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지원
  - 농업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23%, 고용의 5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 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하위 20개국 중 16개국이 아프리카에 속함.
  - 한국은 농업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K-라이스벨트, KAFACI, KOPIA 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개시설 구축, 농기자재 지원, 농촌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병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식량 원조를 확대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기금(IFAD), 녹색기후기금(GCF),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필요

표 9. 식량안보 분야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분야	협력국
K-라이스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개발 사업</li> <li>▪ 협력국: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세네갈, 시에라리온, 우간다, 앙골라, 짐바브웨(14개국)</li> </ul>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농업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출범한 다자간</li> </ul>

40) 113개국을 대상으로 한 식량안보지수 순위 기준이며, 시에라리온, 마다가스카르, 부룬디, 나이지리아, 수단, DR콩고, 차드, 잠비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기니, 토고, 니제르,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순으로 식량안보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Economist(2022), "Global Food Security Index 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7.).



<p>협의회 (KAFACI: Korea-Africa Food &amp;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p>	<p>농업연구개발 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국: 앙골라,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21개국)</li> </ul>
<p>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하는 사업 추진</li> <li>▪ 협력국: 케냐, 알제리, 우간다, 에티오피아,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7개국)</li> </ul>
<p>농촌공동체 역량개발 (새마을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li> <li>▪ 협력국: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li> </ul>
<p>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농업,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수자원 관리,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li> </ul>

자료: 저자 작성.

- [보건]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인력 양성, △감염병 대응,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지원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입, 제조, 인허가 규제 관련 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
  - 아프리카연합(AU)은 2021년 「아프리카를 위한 새로운 보건 질서(New Public Health Order for Africa)」를 발표하고, △보건제도 강화, △보건인력 강화, △백신·진단·치료제 제조 확대, △보건 안보 재원 증대, △존중할 수 있는 행동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섯 가지 전략적 필라로 설정함.<sup>41)</sup>
- [디지털] △전자정부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솔루션, △과학·ICT 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테크 스타트업, △디지털 규제(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 한국은 2023년 OECD의 디지털정부지표(Digital Government Index) 기준 1위 국가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혁신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임.<sup>42)</sup>
  - 정부는 「과학기술·ICT ODA 추진전략」에 따라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수산업, △교육, △보건의료,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개도국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sup>43)</sup>
  -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구상(Tech4Africa)’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 기업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프로그램,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장학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약속함.<sup>44)</sup>
- [기후변화 대응]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확대해 혁신적 녹색기술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상호호혜적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하며, 그린 분야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펀드 출자, 그린 분야 협조융자 플랫폼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sup>45)</sup>

41) Africa CDC(2023. 4. 4.), “The New Public Health Order: Africa’s health security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6.).

42) OECD(2024), “2023 Digital Government Index,” p. 37.

43) 국무조정실(2022. 1. 27.),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검색일: 2024. 7. 23.).

44) 아프리카 미래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보편적 디지털 교육(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도구 학습 기회 제공), △직업훈련(지역 일자리 수요와 연계한 대학과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일자리 기회 제공(숙련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년 현지 및 해외 취업) 분야에서 협력 Magazine KOICA,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의 토대 위 '청년,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하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3.).

45)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

-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중 13%에 달하는 3,750만 톤을 국외에서 충당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은 국제사회에 기술 개발·이전, 역량 강화, 재원 조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파리협약 제6조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탄소감축(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2,77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투자 규모는 1/10 정도에 그쳐 기후변화 대응 파이낸싱 갭이 큼.<sup>46)</sup>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에너지, 교통, 스마트시티, 물관리 및 위생, 농업) 분야에서 아프리카 진출 기업을 지원
- [청색 경제] 도서·해안국을 중심으로 청색 경제에 대한 협력 요청이 많았던바,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등 지역협의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안·해양 계획, 친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항만, 지속가능한 해양 및 수산 자원 관리, 해양 치안 등 해양·청색 경제 분야에서 협력 확대
  - 아프리카 지역에서 청색 경제는 식량안보, 경제활동,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분야로 3,000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과 4,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됨.<sup>47)</sup>
  - 한국은 2024년 7월 제5차 「한-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인도양의 광대한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동참하고 있음.<sup>48)</sup>
  - 2008년 「한국-태평양 도서국 포럼 협력 기금」을 설립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동 분야에서 협력 확대 가능
- [민간 진출 지원]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원하고, 정부간 협력을 지렛대 삼아 인프라·제도 부족 등 협력의 장애물을 개선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교역 및 투자를 증대해 경제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
- [경제통합 지원]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 발전이 AfCFTA를 통한 대륙 차원의 경제통합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프리카 지역 역내 무역 활성화, 역내 시장 통합 관련 협력과제 발굴 필요<sup>49)</sup>
  - AfCFTA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역내외 무역 확대, 산업화, 해외투자 증대, 아프리카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회원국 간 교역 환경의 편차가 크고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시범 사업인 GTI(Guided Trade Initiative)를 통해 우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7개국(카메룬, 이집트, 가나,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면서 추가될 24개국으로 확대<sup>50)</sup>
-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 아프리카 개별 국가와 TIPF, EPA 등 맞춤형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교역·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해 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

46) Climate Policy Initiative(2022), p. 6.

47) World Bank(2022. 11. 15.), "Blue Economy for Resilient Africa Progra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10.).

48) 전체 2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가 회원국임. 외교부(2024. 7. 3.), 「외교부, 환인도양연합과 해양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49) 한선이 외(2023),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연구」, p. 244.

50) GTI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은 96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혹은 우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가봉, 콩고공화국,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앙골라,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말라위, 레소토, 에스와티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카보베르데, 코모로, 세이셸이 GTI에 추가되어 AfCFTA에 따라 특혜무역을 시작할 예정임.

-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sup>51)</sup>
-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33개국은 무관세·무쿼터 제도의 대상이나 지역 내 다른 국가는 혜택에서 제외됨.
- 미국은 비대칭적 무역협정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 Growth Opportunity Act)」을 통해 아프리카 내 40개국에, EU는 EBA(Everything but Arms)를 통해 32개국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보장협정은 △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 △불법적인 수용 금지, △투자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 △분쟁 해결 절차 보장을 포함하는데, 현재 아프리카 17개국과 협정 발효된 상태임.<sup>52)</sup>
- [수출금융 확대]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확대하기로 한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 아프리카 진출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해외직접투자, 원자재 조달 등을 지원
  -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자금과 경험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을 혼합하여 한국기업의 대아프리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지원 가능<sup>53)</sup>
- [아프리카 진출기업 지원]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한 산업별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아프리카 진출기업에 대한 출자, 후속 투자, 인수합병 등 과정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
  -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의 규모를 확대하여 진출기업 정보 파악, 현지 기업 매칭 등 현지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증진하고, 현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진출 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제공
- [아프리카 스타트업 육성] 개발협력에서도 민간 부문이 협력의 주체가 되는 민간부문참여(PSE: Private Sector Engagement)가 강조되고 있어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 한국기업은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현지 기업에 투자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요국은 민간협력의 주요 채널로 양자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협력국 내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파트너십 기회 모색,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일본의 공여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Project NINJA(Next Innovation with Japan)를 통해 아프리카 19개국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함.<sup>54)</sup>

■ [공급망 협력]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및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 [협의체 안건 구체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내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의 목적과 안건을 구체화하여 양자·다자 간 협력을 강화

51) 아프리카 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거시경제 환경, 행정·제도의 비효율성, 치안 불안, 분쟁 발생,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계약 위반, 자산몰수, 송금 제한 등의 리스크 요인이 많음. 한선이 외(202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p. 220.

52) 튀니지, 세네갈, 남아공,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로코,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콩고공화국, 모리셔스, 가봉, 르완다,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와 체결했고,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과의 협정은 발효되지 않음.

53) 경험증진자금(EDPF)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 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저금리 중장기 조건으로 제공하는 비구속성 양허성 자금임.

54) Project NINJA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25).

- 아프리카 기업은 주로 광물을 생산하는 상류 부문에, 한국기업은 주로 완성품인 배터리·전기차를 생산하는 하류 부문에 참여하고 있어 상호보완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기업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상류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과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교섭이 중요함.<sup>55)</sup>
- 한국은 첨단산업이 성장의 원동력이나 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해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 중임.
- [공급망 협력 분야] 광종별로 아프리카 지역 내 우선 협력국을 선정하고 △지질연구, △광물 탐사 및 개발, △정·제련 및 가공 시설 구축, △인프라 구축, △기술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도출 필요
  - 아프리카 광물 생산국 다수가 원광 수출 금지 및 광업 분야 정부 참여 확대 등 자국 내 광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내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 광물 탐사·개발과 더불어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됨.
  - 이에 핵심광물 관련 정보 교류 및 연구 개발 등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자간 산관학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기반 인프라 구축·광물 탐사 및 개발·정·제련 시설 구축·기술 인력 양성/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형태로 패키지 형식 진출 필요
- [ESG 기준 강화] 국제사회에서 사업 추진 단계는 물론 투자 단계부터 ESG 원칙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광물자원 활용을 위한 기술협력, 광물 생산국의 투자 환경 투명성 강화, 광산 현장 에너지 및 자원 사용, 지역사회 보전 및 환경 문제 등이 주요 이슈임.<sup>56)</sup>
- [그린 전환 지원] 핵심광물 협력에서 투명성, 공정성, 최적의 광물 활용을 강조하는 아프리카연합(AU)의 아프리카 광업 비전(Africa Mining Vision) 원칙을 준수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핵심광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청정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린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함.
- [투자 지원] 핵심광물 개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특성과 광업 관련 현지의 법·제도를 고려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광물생산국은 광업 활동에서 정부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광업법을 개정하는 추세로, 탄자니아의 경우 2022년에 정부가 광업기업 자본의 최소 16%를 희석되지 않는 자유보유지분(Free carried interest)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 저소득국의 부채 문제 해결과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파이낸싱 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필요

- [정부부채 문제 해결] IMF, G20, 파리클럽 등 국제사회의 채무 재조정 논의와 저소득국의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
  - 최근 국제적인 금리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로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2024년부터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 상황 규모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져 재정 기반이 악화되고 있음.<sup>57)58)</sup>

55) 윤병효(2022. 10. 4.), 「SK, 배터리 광물 업스트림까지 엮는다」, 전기신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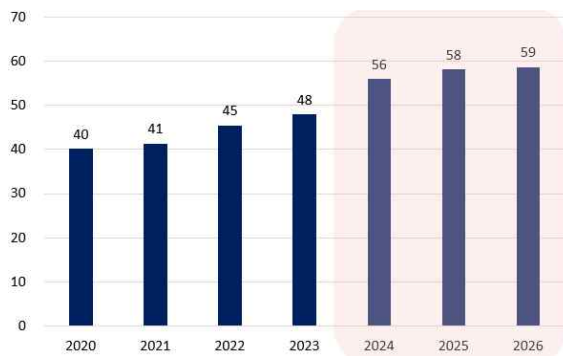
56) EIU(2023. 3. 22.), "African mining sector looks to the future."

57) 안성배 외(2023), 「2023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p. 126.

58) 한선이 외(2023),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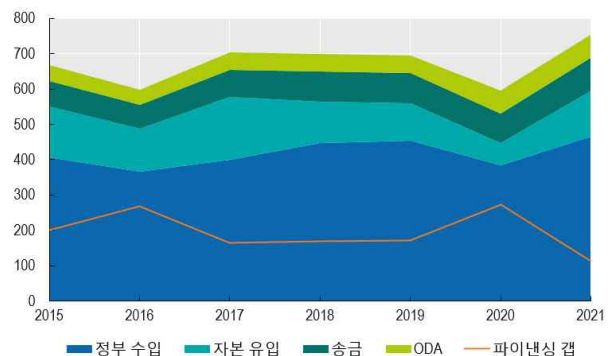
- 미국은 2024년 5월 케냐의 루토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아프리카 저소득국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나이로비-워싱턴 비전’을 채택함.
- [개발 파이낸싱 지원] 아프리카 지역에서 2030년까지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1,940억 달러, 총 1.6조 달러 수준의 파이낸싱 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됨.<sup>59)</sup>
- 이는 아프리카 지역 GDP의 7%, 2021년 투자금액의 34% 수준임.

그림 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외채 상환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안성배 외(2023), 「2023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p. 126.

그림 7. 아프리카의 자원과 파이낸싱 갭(2015~21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3), "Africa's Development Dynamics," p. 21.

- [개발 파이낸싱 협력] 한국정부는 아프리카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파이낸싱을 위해 IMF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을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2024년 5월 IMF 집행위원회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하이브리드 자본 상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 사용을 승인했고, 이에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가 아프리카 지역 사회 및 기후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의 특별인출권(SDR)을 은행 측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sup>60)</sup>
-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부 재정 부족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개발형 민관협력사업(PPP: Private-Public Partnership)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기업은 사업 발굴·기획부터 시행·운영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사업관리 역량을 키우면서 특히 금융 조달에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한국기업은 투명성과 자원 안정성이 높은 국제기구의 조달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sup>61)</sup>
  -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인프라 파이낸싱 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2021년 PPP 전략프레임워크(PPP Strategic Framework)를 수립하여 PPP 환경 개선과 PPP 사업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sup>62)</sup>
- [자원 조달 다각화] 다자개발금융기관(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국내의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주요국의 개발금융기관(DFI), 현지 상업은행, 국제 상업은행 등 자원 특성을 상호 보완한 금융기관 간 협조융자 방식으로 사업 추진 필요

59) OECD(2023), "Africa's Development Dynamics 2023," p. 21.

60) AfDB(2024. 5. 15.), "African Development Bank an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elcom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IMF) Executive Board's Decision Approving Use of SDRs for Hybrid Capital Instru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15.).

61)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수주하더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62) 한선이(2024), 「아프리카 인프라 시장 현황 및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 해외건설저널, 2분기.

- 위험도가 높고 금융산업 발달이 부진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은 정부의 유무상원조, 수출입은행의 경험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다자개발금융기관 신탁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의 상업은행 및 펀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금융 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

표 10. 한국의 다자개발금융기관 신탁기금

지표	기금	내용	규모
World Bank	녹색성장기금	녹색성장(교통, ICT, 도시개발, 수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발전 경험 공유	8,616만 달러 출연
	한-WB협력기금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 사업 발굴, 사업 준비 및 협조용자를 통해 수원국 중점 분야 지원	2억 786만 달러 출연
	IFC기술협력기금	민간투자 활성화 및 신시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통, ICT, 에너지, 환경 분야 민간 부문 대상 기술지원 및 자문 서비스 제공	1,050만 달러 출연
AfDB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자원외교 기반 조성	1억 2,000만 달러 출연
EBRD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EBRD 수원지역에 대한 체제 전환 지원 사업	3,711만 달러 출연
IMF	한-IMF 기술협력기금	저소득국 거시경제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입안, 교육/훈련 지원	1,600만 달러 출연
GGGI	한국 그린뉴딜 신탁기금	한국판 그린뉴딜과 연계한 해외사업 개발 및 정책/규제 수립, 역량 개발 지원	60억 원 출연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맞춤형 양자 협력 강화 대륙 차원의 논의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환경과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프리카 54개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별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다양성 존중 한 국가가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상회의가 잦아지면서 아프리카 내에서 '세계를 누비는(globetrotting)'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개별 국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음.<sup>63)</sup>
- [AU 협력 강화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G20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강화 필요<sup>64)</sup>
  - 아프리카 회원국의 입장과 기대를 공식화하는 아프리카연합(AU)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전략 및 정책 프레임워크(African Partnership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를 마련 중임.
  - 한국은 2005년부터 아프리카연합(AU)의 옵저버로 활동하며 UN 평화 유지군 파병, 국제사회 해적 퇴치 활동 참여, 퇴역함 기여 등으로 아프리카의 평화·안보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AU 협력기금(2013~21년 770만 달러)과 AU 평화기금(2016~21년 1,640만 달러)을 통해 AU 재정에 기여함.<sup>65)</sup>

63) 2023년 케냐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미국, 유럽, 튀르키예 등 개별 국가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논의하는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후 이탈리아, 한국의 정상회의에 연달아 참석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음. Wanderi, Kamau(2024. 6. 5.), "Ruto mocked for Africa-Korea Summit return after taunting 'globetrotting' African leaders," The Africa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17.).

64) 2023년 아프리카연합(AU)이 G20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기존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의 목소리와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맞춤형 양자 협력 강화] 따라서 아프리카 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향후 협력은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의 발전 수준, 개발 전략 및 중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양자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필요
  - 아프리카 대륙은 다섯 권역(북부, 동부, 서부, 중부, 남부)으로 구분되어 각 권역의 역사적 배경, 기후 및 자연 환경, 경제 구조 등이 다르고, 권역 내에서도 국가별로 발전 수준이나 개발 수요가 상이함.
  - 최근 정부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에서 아프리카 지역 개별 국가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협력 방향을 달리하는 접근 방식을 고안하는 등 협력 고도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sup>66)</sup> KIEP

65) 아프리카 지역기후 약황, 「아프리카 연합」, 한-아프리카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 7. 3.).

66)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안)」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를 최저개발국, 취약국, 중소득국, 고성장 저소득국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협력 방향을 제안함.

## 부록

### 1. 다자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

부록 표 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개관	1~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li> <li>한국과 아프리카가 호혜적 파트너십에 기반해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할 필요</li> </ul>
동반성장	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의 산업화 지원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li> <li>-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 체결 확대</li> </ul>
	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단일 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지원</li> <li>- 범아프리카 지불결제시스템,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등 시스템 구축</li> <li>-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 공유, 관세 당국 역량 강화</li> </ul>
	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원</li> <li>-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관리 시스템 등 프로젝트 추진 협력</li> <li>-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 체계 등 스마트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li> </ul>
	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기술협력 강화 및 농업, 보건의료 등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li> <li>디지털 정부 분야 협력 강화</li> <li>-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조달시스템(KONEPS), 통계시스템(KOSIS) 등의 전문성 공유</li> </ul>
	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추진하여 교육 및 훈련 분야 투자 증대</li> <li>-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 직업기술교육훈련 학교 설립,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 등 확대</li> </ul>
	1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아프리카연합의 어젠다 2063 달성을 위해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강화</li> </ul>
지속가능성	1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식량안보, 보건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협력</li> <li>-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방법 채택</li> <li>- 국제개발협회(IDA) 재원 보충의 중요성 강조 및 IDA-21 최종회의 한국 개최</li> </ul>
	1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증진</li> <li>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추진</li> <li>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li> <li>조리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증진</li> <li>기후금융 제도 구축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li> </ul>
	1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협력을 위한 그린 ODA와 농업 ODA 사업 확대</li> <li>- 기후 적응 농업기술 적용 활성화</li> <li>- 관개시설 확대, 관개 및 수자원 공급에 관한 지식 보존</li> <li>-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노하우 공유</li> </ul>
	1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li> <li>글로벌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li> <li>- 감염병 감시 강화</li> <li>-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li> <li>- 필수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 역량 증진</li> <li>- 의약품 안전 강화 및 공중 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li> </ul>



	1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산업 발전을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li> <li>한국기업의 투자 확대, 광물 분야 부가가치 증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li> </ul>
연대	16~18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연합의 평화·안보 활동에 기여(재정 기여, 유엔평화유지요원 파견, 해적퇴치 활동)</li> </ul> </li> <li>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 지원과 인도적 지원 제공</li> </ul>
	1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자지구 상황 해결을 위한 UN 안보리 결의 제2728호(2024)의 완전한 이행 촉구</li> <li>- 휴전, 인도적 접근 보장, 당사자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 요구</li> </ul>
	2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기구 내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2024~25년 동안 아프리카 비상임이사국과 긴밀하게 협력</li> <li>- G20 회원국인 아프리카연합과 협력</li> </ul> </li> </ul>
	2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li> </ul>
	2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이해와 연대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증진, 젊은 세대의 고용 기회 창출 및 전문가 육성</li> <li>고위인사 교류,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li> <li>상호 항공 연결성을 증진</li> <li>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 확대</li> </ul>
향후 계획	2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까지 ODA 규모 100억 달러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CF 기본약정 확대 및 무상원조 지원 강화</li> </ul> </li> <li>2030년까지 수출금융 규모 140억 달러 제공</li> <li>-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내 활동 도모 및 아프리카와의 무역·투자 촉진</li> </ul>
	24~2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상회의 성과 이행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와 한-아프리카 농업 장관회의 활동 강화</li> <li>- 신규 고위급 협의체(관세청장 회의, 통계청장 회의 등) 구축</li> </ul> </li> <li>정상회의 결과 종합 평가와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해 2026년 외교장관 회의 개최</li> </ul>

자료: 대통령실(2024. 6. 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양자회담 주요 논의 내용

부록 표 2. 양자회담 주요 논의 내용

국가	논의 내용
시에라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한 무역 및 투자 증대</li> <li>K-라이스벨트를 통한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및 확대</li> <li>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과 시에라리온 간 국제사회 내 협력 강화</li> </ul>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선언</li> <li>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협력 확대</li> <li>2024~28년 25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체결</li> <li>핵심광물 공급망 MOU, 청색 경제 협력 MOU 체결</li> </ul>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28년 10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약정 체결</li> <li>2023년 10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쌍방적인 경제발전 추진</li> <li>광물 개발, 방위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확대</li> </ul>
레소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들과 협력 강화 희망</li> </ul>
코트디부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li> <li>2024~28년 EDCF 10억 달러 규모의 기본약정 체결</li> <li>농업, 의료, 교육·훈련 분야 개발협력 강화 희망</li> </ul>

모리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통한 교역 및 투자 증진</li> <li>환인도연합(ITORA)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li> <li>인프라, 농수산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li> </ul>
짐바브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류 확대 희망</li> <li>농업(K-라이스벨트), 관광 및 문화 분야 협력 확대</li> </ul>
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 제안</li> <li>농업, 기후, 에너지, 해양 안보 분야 협력 확대</li> </ul>
르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시티, 인프라, 모빌리티 MOU 체결로 전문가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 기대</li> </ul>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광물 분야 및 경찰 치안 교육 협력</li> <li>천연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 요청</li> </ul>
상투메프린시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보건, 치안, 수산업, 관광,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li> <li>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가입을 통한 농업 분야 협력 제안</li> </ul>
기니비사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기술, 보건, 수산업 분야 협력 강화</li> <li>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과 기업 상담회를 통한 투자 및 교역 확대</li> </ul>
카보베르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간 경제·무역·문화·과학·교육 분야 MOU를 체결하여 협력 증진</li> <li>교역·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해양수산,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li> </ul>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논의 개시, 인프라, 식량안보, 해양,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li> <li>케냐 과학기술원(Kenya-AIST) 건립 사업 지원</li> </ul>
마다가스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광물 협력 파트너십 MOU 체결을 통한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li> <li>K-라이스벨트 사업 MOU 체결 등 농업 분야 협력 확대</li> </ul>
라이베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 농업 분야, 경제발전경험 공유 협력</li> </ul>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 확대</li> <li>유상원조 규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협력 확대</li> <li>국제기구 진출 선거와 안보 현안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와 협력 강화</li> </ul>
적도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을 기반으로 국가경제개발계획(Horizonte 2020) 이행</li> <li>양국간 협력 분야 다각화 희망</li> </ul>
에리트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협력분야인 인프라 외 농수산업, 자원개발, 인력 훈련과 개발 등의 분야 협력 강화</li> </ul>
코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농업 분야 외 개발협력 분야 확대 희망</li> <li>청년 고용 확대 및 직업 역량 강화</li> <li>청색경제협력 MOU 체결 논의,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li> </ul>
보츠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제안</li> <li>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li> </ul>
에스와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 확대</li> <li>농업, 보건·의료, 정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li> </ul>
중앙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역량 강화, 디지털 협력, 자원개발 등 협력 분야 확대</li> </ul>
세이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색 경제 및 수산업 분야 협력 모색, 수산협력 MOU 체결</li> <li>인도양의 자연환경 보호, 관광,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 희망</li> </ul>
모리타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인프라,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li> <li>모리타니의 수산·광물자원, 젊은 인구나 한국의 기술력 활용 희망</li> </ul>
아프리카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한-아프리카 간 경제 교류 활성화 희망</li> </ul>

주: 국가별 순서는 양자회담 개최 시간순임.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국가별 고위급 회담 주요 논의 내용

부록 표 3. 국가별 고위급 회담 주요 논의 내용

국가	논의 내용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 한-가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li> <li>[외교부] TIPF, EDCF 기본약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li> </ul>
가나비사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수산업, 농업 분야 협력 논의</li> </ul>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녹색수소, 핵심광물 분야 협력 논의</li> <li>[농림축산식품부] K-라이스벨트와 농업연구개발협의체(KAFACI)에 나미비아의 참여 요청</li> </ul>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한국기업들의 나이지리아 진출 요청</li> <li>[산업통상자원부] 비료, 정유, LNG 등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li> <li>[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이지리아의 식품의약품청과 의료제품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MOU 체결</li> </ul>
르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 한-르완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교역·투자 관련 협력 논의</li> <li>[국토교통부] 인프라 부문 협력 논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모빌리티 협력 MOU 체결</li> </ul>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총리] 경제,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 협력, 한국 기업의 재진출 및 인적교류 활성화 논의</li> </ul>
마다가스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농업, 보건, 환경, 인프라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li> </ul>
말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광물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협력, 발전 경험 공유 요청</li> <li>[국무총리] 말라위 비전 2063(Vision 2063)의 실행을 위한 협력</li> <li>[산업통상자원부] 한-말라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교역·투자 및 에너지 부문 협력 논의</li> <li>[농림축산식품부]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농업 현안 공유, 농업 협력 확대 및 농업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논의</li> </ul>
모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EDCF 차관협정 체결, 한국 기업의 모로코 진출 논의</li> <li>[국무총리] 기후변화협정, EDCF 차관협정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 분야 협력 확대</li> </ul>
모리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무역 및 투자 확대</li> </ul>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제안</li> </ul>
베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총리] 직업기술훈련, 농업, 교육, AI 분야 협력 논의</li> </ul>
보츠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교역 및 투자, 수자원, 농업, 보건 분야로 협력 확대</li> </ul>
세네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교역 및 투자, 농업, 직업훈련·교육 분야 협력</li> </ul>
세이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수산부] 인도양 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 조성,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li> </ul>
소말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총리]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li> </ul>
시에라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 교역 및 투자 분야 협력 논의</li> <li>[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 현안 공유, K-라이스벨트·식량원조·기술협력 등 농업 협력 확대, 한국기업의 농산업 제품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논의</li> </ul>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제조업, 교육,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 논의</li> </ul>
우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총리] 교역 및 투자 확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요청</li> </ul>
잠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광물 분야 협력 논의</li> </ul>
중앙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 경제 및 광물 분야 협력 논의</li> </ul>
지부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해양안보 분야 협력 논의</li> <li>[국무총리] 지역 발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담수화 시설 확대 사업, 북부 해안개발 프로젝트 협력,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논의</li> </ul>
잠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K-라이스벨트 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 농업 분야 협력, 한국산 농기자재 이용을 위한 협조 당부</li> <li>▪ [외교부] 항공협정 체결, 정부간 협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li> </ul>
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농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li> </ul>
카메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 확대 기대</li> </ul>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교역 및 투자 협력 논의</li> <li>▪ [해양수산부] 수산업, 어촌 부문, 해사 분야 협력 논의</li> </ul>
코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지식 교류 및 민관협력 강화 위한 MOU 체결</li> </ul>
코트디부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한-코트디부아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교역 및 투자 협력 논의</li> </ul>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한-탄자니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가속화</li> </ul>
튀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스타트업 및 의료기기 등의 분야 협력, 튀니지의 수요에 맞는 개발협력 사업 추진</li> <li>▪ [국무총리] 경제 분야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li>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협력에 관한 MOU 체결</li> </ul>
아프리카자유무역지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 교역 및 투자 등 경제 부문 협력 강화</li> <li>▪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모로코·케냐·탄자니아와 추진 중인 EPA 관련 관심과 지원 당부</li> </ul>
아프리카개발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성과 공유 및 농업 분야 협력</li> </ul>

주: 국가별 순서는 가나다순임.  
자료: 부처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